



특허청

#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11.(일) 낮12시	배포 일시	2022. 12. 9.(금) 14:30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장 이재석 (042-481-8172)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윤 (042-481-5187)

##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 추진 - 미래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 -

□ 20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되어 본격 추진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창의력 등 미래역량\*과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재들이 다양한 경로로 육성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이 강화될 전망이다.

\* (기존)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 → (미래) 정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도전정신, 비판적 사고, 협업·의사소통 능력 등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미래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은 발명교육을 경험한 학생, 지식재산·발명교육 전문가, 창업 CEO, 산업·과학기술계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2030년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 새로운 지식재산 인재상은 '지식재산을 ①이해하고 ②활용하여 ③미래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 (종래 인재상)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 ①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지식재산 속성과 제도를 이해하여 현실 문제를 발견·해결하고, ②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화·사업화·창업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③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사회·경제의 발전·변혁을 견인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중고·청소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 확산

-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개설되도록 노력하고, 타 교과목과 발명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한다.
- 발명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발명교원 양성경로를 다각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험·심화교육이 가능하도록 주요 권역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 온·오프라인 교원연수 확대, 일부 권역에 설치된 발명교사 교육센터를 주요 권역으로 단계적 확산 추진, 발명교사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 등

-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문성을 갖춘 발명교원으로부터 체계화된 발명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연구자] (예비)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 지식재산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도교원 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기술분야에서 지식재산 소양과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며,
- 미래 유망분야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기술·융합교육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기업 현장 및 지역 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기업·국민]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일반 국민에게 유용한 지식재산 콘텐츠를 분야별·목적별로 제작·보급하고, 교육활동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 정부 중심 → 지자체·평생교육기관·민간 등 지역·민간의 활동 기반 강화
- 또한, 수준별 교육 로드맵을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 다양한 교육주체를 통해 지식재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지식재산 인식이 개선되고,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양성기반] 국가 차원의 발명·지식재산 교육 기반 확충

- 개정 발명교육법(시행 : '22.12.11)이 지자체 등 교육정책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 발명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발명교육 우수사례 공유·확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제공 등
  - 언제 어디서나 발명·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 이를 통해,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인재 육성·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1

## (요약)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 I 추진 배경

-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혁신을 견인하는 IP기반 인재양성이 시급

\* 글로벌 기업도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면 짧은 시간에 도태,  
IP기반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

발명 스티브 잡스(애플) 특허 500건 이상 발명(생전 317건 등록)

CEO 제프 베조스(아마존) 특허 154건 발명('21.2월 퇴임사, '계속 발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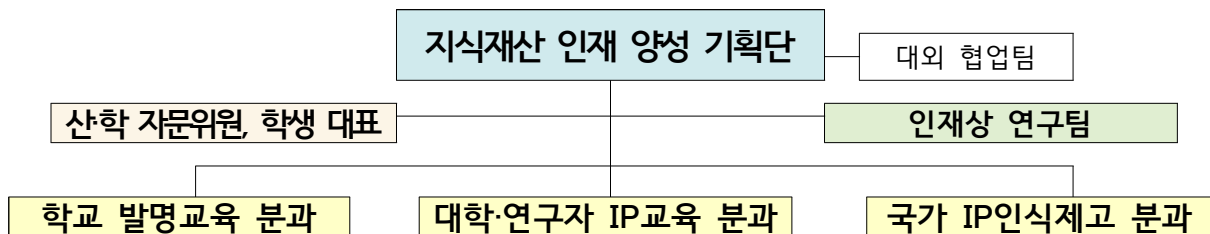
\*\*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 → 정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업 등) 능력

- 주요국은 IP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장기적인 'IP 인재양성 정책' 수립이 요구

### II 추진 경과

-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 구성 및 운영('21.10~)

\* IP·교육 전문가, 산업·과학기술계 등 전문가, 창업 CEO, 학생 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



- (분과·전체회의) 각 분야 목표·방향 설정, 중점 과제 발굴·검토(4회)
  - \* (대외협업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및 과제 발굴(6회)
- (인재상연구팀) 인재상 정립 자문, 정합성 검증 등 실시

#### (IP인재상)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미래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

이해	▶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지식재산 속성과 제도를 이해하여 현실 문제를 발견 및 해결
활용	▶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화·사업화·창업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혁신	▶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사회·경제의 발전·변혁을 견인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수립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 검토 및 의견수렴
- (관계자) 전문가·관계부처·협업부서 등과 세부 정책과제 보완·확정('22.11)

## 〈 추진 방향 〉

□ [초·중·고] 발명교육을 비교과활동 중심에서 **정규교육화**

-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內로 편입하고, 타 교과목과 발명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
- 발명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발명교원 양성체계를 다각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험·심화교육이 가능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

□ [대학·연구자] IP 융합역량 함양을 위한 **보편교육화**

- 다양한 전공 및 기술분야에서 IP 소양 및 융합역량을 갖춘 (예비) 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 IP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IP교육 환경을 조성
- IP교육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분야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IP 기술·융합교육 추진

□ [기업·국민] 모두가 IP 소양을 체득하는 **평생교육화**

- 수요자에게 유용한 분야별·목적별 IP콘텐츠를 제작·확산시키고, 교육 활동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전 국민 IP 인식 제고 추진
  - \* 정부 중심 → 지자체·평생교육기관·민간(기업·전문가) 등 지역·민간의 활동 기반 강화
- 수준별·분야별 교육 훈련 로드맵을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양성기반]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교육화**

-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IP교육, 교육 콘텐츠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추진
- 사회 전반에 발명·IP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목표  
(~'30)

◆ 대상별 요구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IP인재 양성

- \* (청소년 발명교육) 35.4만명('20) → 65만명('25) → 80만명('30)
- \* (대학 IP융합교육) 5.5만명('20) → 15만명('25) → 30만명('30)

◆ 국민의 IP 소양 체득 및 인식 제고

- \* (일반인 IP 인식, 거의 모름) 40%('20) → 30%('25) → 20%('30)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초·중·고)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발명·IP교육 확산

- 1 정규 교육과정 내 발명·IP교육 내재화
- 2 현장에 필요한 발명·IP교육 전문가 양성
- 3 지역·대상별 발명교육 지원체계 마련

2

(대학연구자) (예비)연구자의 IP 창출·활용 역량 제고

- 1 기술·IP융합 인력양성을 위한 보편교육
- 2 국가지역 핵심 연구분야의 IP역량 제고
- 3 고품질 IP서비스 전문인력·기관 육성

3

(기업·국민) IP인식 제고

- 1 취업·창업·해외진출을 위한 IP교육 확대
- 2 관리자를 위한 IP경영·정책 교육 강화
- 3 대국민 IP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4

(양성기반) 국가 차원의 IP교육 확산 인프라 구축

- 1 발명·IP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2 발명·IP교육 디지털 인프라 구축
- 3 발명·IP교육 연구기반 및 사회 인프라 강화

# 1. (초·중·고)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발명·IP교육 확산

현 재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개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교육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 외 활동으로 운영되어 확산 한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발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반영 추진</li> <li>- 학교 타 정규교과와의 연계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 교원 중심의 제한적 발명교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발명교원의 수급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을 갖춘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양성경로 다각화, 인증제 활성화</li> <li>- (비교원) 전문가 Pool 구축·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발명교육센터는 교실 1~2개 규모로 기초 교육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창의발명 활동만 수행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단위 발명교육기관 구축·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 가능</li> <li>- 지역특화 전시·체험 공간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교육 자원·역량이 특정 대상분야에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계층별 교육 불균형 발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발명교육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등 지역거점 확대</li> <li>- 우수 발명인재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li> </ul> </li> </ul>

□ (현장의견) 모집된 일부 학생 대상 교육에 따라 확산에 한계가 있고, 체험·심화 교육 수요는 증가하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발명교육 전문가는 부족\*

\* 학교 현장에서는 발명 관련 전공 교사 수가 부족하고(84.5%), 발명 관련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67.6%)하다고 인식 -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박기문 외 2인, '18)

○ 다양한 학생요구 수준에 맞는 발명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제공할 인프라도 부족

□ (핵심내용) ①교육과정 內로 발명교육 편입, ②교육전문가 육성, ③균형교육

○ (교육과정<sup>개편</sup>) 국가 교육정책의 교육과정에 발명·IP교육 반영·개설을 확대하고, 학교 타 정규교과와의 연계도 강화

○ (교육전문가<sup>다각화</sup>) 발명교사교육센터 및 교육대학원 발명·IP교육과정 확대,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 육성 등 양성경로 다각화 및 전문성 제고

○ (지역인프라<sup>확대</sup>) 전국 어디서나 전문교원에 의한 고품질의 체험·심화 발명교육이 가능한 인프라 확대 구축(영남 1개 → 전국 주요 권역)

○ (균형교육<sup>강화</sup>) 발명영재, 과고·영재학교, 직업계고, 일반 청소년, 농어촌, 장애인 등 학생의 수준 및 환경을 고려한 교육 지원 강화

## 2. [대학·연구자] (예비)연구자의 IP 창출·활용 역량 제고

현 재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대학에만 IP 소양강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이 있는 대학 중심의 IP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IP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IP교육과정, IP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IP교육 교원 양성 등을 통한 보편교육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핵심기술 분야 R&amp;D (예비)인력에 대한 IP연계 교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른 기술 진화에 따른 기술·IP 융합인력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산업 및 미래유망 분야 선점을 위한 기술·IP 융합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R&amp;D, 신기술 분야와 연계된 IP교육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혁신기업에 공급할 IP전문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IP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IP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수요, 주력산업과 연계된 IP교육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에 대한 IP서비스 전문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특허, 핵심연구분야에 대한 IP R&amp;D, IP 가치평가 등 전문분야 인력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위 IP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 전문학위과정 內 교육과정 개선</li> <li>- 토론/사례형 전문 교육과정 개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리사에 대한 제한적 정보제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리사 전공 기술분야 공개</li> <li>-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 미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리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리사 전문영역 정보제공, 연수제도 개편</li> <li>- 등록 갱신제도 도입</li> </ul> </li> </ul>

□ (현장의견) 전공과 관계없이 IP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며, 분야별 전공교원의 IP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제고\* 필요

\* IP 교수교육을 이수한 전임교원은 약 4,400명으로 일반대학 전임교원의 약 6.6%(21)

○ 신기술 분야, 지역 기업 등을 위한 양질의 IP인재 공급이 부족하며, 국제 IP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위 IP서비스 인력 양성도 필요

□ (핵심내용) ①국가·지역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IP역량 제고, ②강의실이 아닌 현장 중심(대학·지역산업 연결) IP인재 양성, ③(예비)연구자의 IP소양 강화

○ (전략산업<sup>강화</sup>) 반도체 등 전략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관계 부처의 차세대 주력산업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한 IP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지역산업<sup>전파</sup>) 지역별 IP중점대학을 통해 제약바이오 등 지역 핵심분야에 특화된 기술·IP융합인력 양성 및 지역내 IP교육 전파

○ (교육과정<sup>확산</sup>) 대학내 IP교육의 원활한 확산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대학 IP교육을 견인할 지도교원 양성

○ (IP서비스<sup>육성</sup>) 토론·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최상위 IP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IP서비스 산업계에 필요한 실무인력 역량강화

### 3. (기업·국민) IP인식 제고

현 재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구직자의 IP인력 미스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필요</li> <li>- 구직자·창업자는 실무 경험이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기반 직무·창업역량을 갖춘 IP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은행제 등 체계적인 IP학습 지원</li> <li>- 기업현장에서의 실무경험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적인 IP기반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초 과정 중심으로 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기반 창업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기관(각종 창업지원기관) 및 교육 내용(기초→심화 등) 확대</li> <li>- 창업지원 인력에 대한 IP역량 제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실무자 중심의 IP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경영 등 IP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책관리자를 위한 IP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경영진의 인식 제고(IP경영문화 확산)</li> <li>- 국내외 IP 관련 공무원의 IP정책보호 역량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IP가 전문가 영역이라는 선입견</li> <li>- 단편적·분절적인 IP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모두가 IP소양을 체득하는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IP를 친근하게 전달할 인력 양성</li> <li>- 체계적 교육아수를 위한 IP교육과정 로드맵 제공</li> </ul> </li> </ul>

□ (현장의견) 모든 경제주체에게 IP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나, 기업 CEO, 일반국민 등은 여전히 IP인식이 매우 저조\*\*

\* 코로나19 IP 유예, SK-LG 배터리 분쟁, 덮죽 상표 도용, 한류·K-POP(BTS·기생충) 등

\*\* 일반국민의 40%는 지식재산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응답(지재위 조사, '20.5)

○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나, 구직자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 일반 국민은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 속 발명교육·체험이 필요

\* (기업) 신입보다 경력직을 우선 채용(53%), (구직자) 직무·인턴경험이 가장 필요(50%)

□ (핵심내용) ①민관이 함께 국민들의 IP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②취업·창업과 연계한 IP교육 확대, ③IP경영 인식제고 교육 강화

○ (교육주체<sup>다변화</sup>) 발명·IP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민간 교육스타트업·커뮤니케이터 양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교육 강화

○ (취업<sup>연계</sup>) 진로탐색 및 (재)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국가공인자격(IPAT) 취득을 위한 교육,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경험 제공

○ (창업<sup>지원</sup>) IP 기반 창업전략을 교육, 창업지원 인력에 대한 IP역량 제고

○ (IP경영·정책<sup>확산</sup>) 기업 의사결정권자, 국내외 IP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IP 경영문화 확산, IP정책 및 보호 역량 강화

## 4. [양성기반] 국가 차원의 발명·IP교육 인프라 확충

현 재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IP교육에 대한 활동 및 지원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IP교육 확산, 정책 추진에 한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IP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발명교육법 등), 조례 제·개정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정책 수립자들에 대한 지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필요한 IP정책역량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에 맞는) IP정책수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정책 수립 특별 프로그램 및 사례정보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교육 콘텐츠의 개별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적인 교육 플랫폼에서 IP교육</li> <li>-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용·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부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채널에서 IP교육을 찾기 쉽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IP교육</li> <li>- 범국가 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IP교육 연구기반 및 사회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인재 양성 정책의 사회 확산 한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IP교육 연구기반 및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책 연구·개발 전담조직 운영</li> <li>- 대내외 협력 체계 강화</li> </ul> </li> </ul>

□ (현장의견) 교육청 등에서는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IP정책 수립자들의 정책역량 강화 지원도 요구

\* (예) 발명교육에 전담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 미비로 발명교육센터의 전담율은 57% 수준('21)

○ 교육 수요자는 자신이 활용하던 채널을 통해 양질의 발명·IP교육이 안내·제공되기를 희망

□ (핵심내용) ①법령·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②디지털 인프라 확대 구축, ③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법령·조례<sup>제·개정</sup>) 발명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 제·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유도 등을 통한 근거 마련, IP정책역량 강화 지원

○ (디지털인프라<sup>구축</sup>) 타 교육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IP교육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교육 콘텐츠의 통합관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연구개발<sup>전담</sup>) 발명·IP 교육정책 연구개발 전담조직의 지정·운영 추진

○ (대내외 협력<sup>강화</sup>) 교육부·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 민간 발명·IP 협·단체와의 협력 강화

## [ 기대 효과 ]

대상	기대 효과	지원 정책
초·중·고 ·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과목에서 발명교육을 이수하고, 타 과목들과 발명교육을 연계·융합하여 <b>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향상</b>시킬 수 있습니다.</li> <li>▶ 발명교원 양성경로가 다각화되고,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도 양성되어 <b>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발명교원으로부터 수업을 듣게</b> 됩니다.</li> <li>▶ 발명교육 인프라(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차세대영재 기업인교육원, 발명 선도학교 및 특성화고 등)가 <b>권역별로 확대</b>되어 전국 어디서나 <b>공정한 발명교육 기회</b>를 누릴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li> <li>▶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li> <li>▶ 정규교육과 연계 강화</li> <li>▶ STEAMIE 미래교육 도입</li> <li>▶ 발명·IP 교육 전문가 양성</li> <li>▶ 지역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li> <li>▶ 지역·대상별 발명교육 지원체계 구축</li> </ul>
대학(원)생 · 연구자 · 청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육에 적합한 IP교육과정이 개발·보급되어 <b>IP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모두 수강</b>할 수 있습니다.</li> <li>▶ 국가 핵심 연구분야 및 미래 유망 분야와 연계한 기술·IP융합 교육을 통해 <b>우수 IP를 창출·활용·보호</b>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li> <li>▶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진로탐색, IP기반 교육·경험이 확대되어 <b>IP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취업과 창업이 활발</b>해집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내 표준 IP교육 과정, 콘텐츠 개발·보급</li> <li>▶ 핵심·유망 연구분야 IP 교육 강화</li> <li>▶ 국가공인자격 취득 지원, 실무경험 강화</li> <li>▶ IP기반 취업 및 창업교육</li> <li>▶ 최상위 IP 전문인력 양성</li> </ul>
대학 ·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b>자생적인 IP교육 역량</b>이 강화되고, <b>IP기반 연구 활동도</b> 보편화됩니다.</li> <li>▶ 기업 경영·관리자의 <b>IP경영 문화</b>가 확산되며, 기업 현장에 <b>필요한 IP인재</b>가 늘어납니다.</li> <li>▶ 지역 기업, 대학, 지자체가 연계하여 <b>지역산업에 필요한 IP인력</b>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전공교수 IP교육, IP중점대학 지정·운영</li> <li>▶ 실무자외 경영·관리자 IP경영 교육 병행</li> <li>▶ 산업계·학계 연구활동 지원, 인식제고 교육</li> <li>▶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기술·IP 융합인재 양성</li> </ul>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스타트업 및 커뮤니케이터 등 <b>다양한 교육 주체</b>를 통해 <b>발명·IP</b>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li> <li>▶ 거주지 인근의 <b>지역 인프라</b>에서 <b>발명 체험</b>을 할 수 있으며, <b>생활 속 발명</b>을 통한 <b>IP기반 창업</b>이 가능해집니다.</li> <li>▶ <b>다양한 교육 플랫폼</b>을 통해 <b>IP 소양</b>을 체득하고, 개인이 <b>목표로 하는 수준</b>에 따라 <b>필요한 교육 과정</b>을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교육기업·교육자 양성</li> <li>▶ 지역 인프라(평생교육원·과학관 등) 연계</li> <li>▶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li> <li>▶ 디지털 통합플랫폼 구축</li> <li>▶ 개인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로드맵 구축</li> <li>▶ 타교육 플랫폼과의 제휴·협업 확대</li> </ul>